

**한국 현대 종교건축에 있어서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Tradition in Korean Religious Architecture in the Modern Age

김정신*/Kim, Jung-Shin

Abstract

This paper, based on the surveys on 43 cases in whole Korea, aims to analyze the architectural principles extracted from the religious dogmas and to propose the direction of the expression of tradition in Korean religious architecture.

Buddhist temples in the modern cities, Catholic churches, Anglican churches, Protestant churches have similar problems and attitudes on the expression of tradition. They have not yet various subjects on the expression of tradition

as 'tradition' is not distinguished from 'transmission'. It is not caused only by the general phase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but also by the lack of the practical theology which extract architectural principles from religious dogma and history.

I proposed 'Architectural vocabulary', 'Architectural syntax', 'Architectural idea', and 'Symbolization of interior space', 'Architectural zeitgeist' as the ideal approach.

키워드 : 종교건축, 전통성 표현, 토착화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재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저마다의 성장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에 걸맞게 크고 작은 수많은 종교 건축물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건조환경에서 종교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대이전까지의 종교건축은 그 시대 그 지역의 건축문화를 선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현대건축에서도 종교건축은 正統性和 歷史性的의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 국제화의 물결속에서 한국건축이 당면한 과제는 正體性 확립이다. 따라서 현대건축에 우리의 전통성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외래종교이든 토착종교이든 종교건축의 전통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전통성을 표현하고 있는 건축물은 찾기 힘들다.

본 연구는 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종교건축에 나타난 전통표현의 요소와 유형을 연대별·종파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교의 이념과 교리로부터 추출된 건축의 원칙과 전통성 표현의 개념정립을 통해 전통계승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대상은 1960년대 이후 현대 종교건축물로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요소에서 전통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건축물이다. 여기서 山地 사찰에 지어진 복원 또는 신축의 재래식 구조와 공법에 의한 고전양식의 목조건축은 제외한다. 조사 대상이 된 건축물은 건축가의 전통 표현의지가 엿보이는 43 개소의 도시형 사찰, 천주교 성당, 성공회 및 개신교 교회당이다. 19세기 말 그리스도교 교회건축이 移入되고부터 일제시대까지 간간히 이어져 내려온 한옥교회는 이미 연구된 바 있고 "현대적인 전통성 표현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통성 표현의 배경으로만 다루고 개별건축물에 대한 분석은 생략한다.

먼저 전통성 논의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일반적인 전통표현의 요소와 방법을 고찰하고, 조사대상 건축물을 종파별로 선정하여 방문, 현장조사를 하고 도면화·정리한다. 그리고 종교건축에 반영된 양식적 전통요소를 建築思想的의 측면, 建築空間的의 측면, 建築造形的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하여 각 종파별 접근방식과 문제점을 비교·평가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종교적 이념과 교리로부터 추출된 원칙과 전통성 표현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전통성 표현의 실마리를 찾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회원,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본 연구는 1995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 결과임

1) 김정신, "초기 한옥성당건축의 토착화에 관한 연구" 建築士 제173호, 1983. 8. 신인식, "선교초기 한국 교회건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5. 김정신, "성공회 한옥성당건축에 대한 실측조사 연구", 건축학회논문집 76호, 1995. 2. 참조

〈표 1〉 종파별 조사 건축물 목록

년 대	도시형 사찰	천주교 성당	성공회 성당	개신교 교회당
1960		내력동성당(1961) 산천동성당(1966) 다기동성당(1966) 질두산성당(1967) 서둔동성당(1969) 구로동성당(1969)	연건동성당(1960)	육군군중센터(1961) 한양교회(1968)
1970	삼보정사(1971) 선학원(1973) 대원정사(1978)	대부도성당(1977)		제암리교회(1970) 연서대 루이스채플(1972) 새문안교회(1972)
1980	불광사(1982) 삼선포교원(1984) 삼보사(1985) 수인사(1988) 법안정사(1989) 대부사(1989) 달마사(1989)	불광동성당(1984) 새남터성당(1987)	수원성당(1982) 나리성당(1983) 석포리성당(1986) 광혜원성당(1989) 백석포성당(1989)	목포 디아코니아 예배당(1985)
1990	석불사(1991) 구룡사(1992) 능인선원(1995) 법련사(1995)	자산성당(1992) 상동성당(1993) 양지성당(1994) 고산성당(1994)	초평성당(1992)	시흥교회(1992) 여담교회(1995) 장석교회(1995)
합 계	14 개소	13 개소	7 개소	9개소

II. 종교건축과 전통성 표현

1. 전통성 논의의 사회·문화적 배경

전통문제가 건축의 중요한 논쟁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역사와 전통문화를 가졌으나 근대화의 道程에서 후진국으로 밀려난 나라가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자주성을 획득하였을 때 3차적으로 문화적 自主性을 목표로 예술운동을 전개하는 경우인데 멕시코, 브라질,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등의 건축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오래되고 우수한 先行문화의 전통이 이질적인 다른 外來文化에 의해 억압당할 때 지향하는 건축론인데 이태리나 프랑스가 여기에 속한다.

외세에 의해 역사의 단절과 동시에 타율적인 서양문화의 수용을 경험한 우리는 두가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官主導의 기념비적인 공공건축은 전자의 경우에 가깝고, 외래 종교인 그리스도교 교회건축의 경우는 후자에 보다 가깝다. 한국 현대건축에 있어 전통성 표현의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인데 그것은 20세기 전반의 획일적인 근대건축의 敎條主義를 지양하고, 각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이른바 세계건축의 지역주의 흐름과 70년대 민족주체성의 확립이라는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이 결합됨으로써 기념비적인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古建築을 재조립한 舊국립중앙박물관(1966)과 전통적 형태를 변형시킨 국립부여박물관(1967)의 전통논쟁은 지금까지의 전통논의에 있어 규범이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통의 정의, 한국적 표현, 전통

의 창작 등 주요 개념이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²⁾ 이후 70년대의 국립극장(1973), 국립경주박물관(1975), 국립공주박물관(1976), 부산시립박물관(1976), 국립광주박물관(1977), 세종문화회관(1978), 그리고 80년대의 독립기념관(1987), 예술의 전당(1988)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논의는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 중심흐름은 형식논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내용으로서의 전통계승 방법론은 최근에 와서야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그 성과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건축에서 아직도 전통논의가 계속되는 이유는 첫째,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방법 및 그 결과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은 옛날의 우리 건축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른 모습은 옛 것이 오늘에 계승, 발전된 것의 결과가 아닌 서구화된 건축문화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며, 셋째, 이러한 서구화된 건축문화는 우리의 옛 모습과는 대립되는 것으로 기존의 우리 건축 및 마을의 모습을 파괴하기 때문이다.³⁾

2. 건축에 있어서 전통의 개념

傳統(tradition)의 사전적인 뜻은 전달, 전해진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일정한 공동체의 기술, 행동, 관습, 사상, 기술의 양식 등 객관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해 파악된 그 양식의 바탕이 되는 정신을 지칭한다.

오늘날 건축에서 논의되는 傳統性은 바로 좁은 뜻의 전통개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건축의 전통성 표현은 주로 넓은 뜻의 전통개념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과거로부터 연속성을 지닌 문화유산에 이어받아 후세에 전하는 傳承(inheritance)의 차원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가치판단과 재평가, 현재성이 결여되었다. 전통이란 정신적인 것, 즉 구체적 모양이 없는 '無形之形'을 의미하고 슬기나 지혜, 창의력, 근본적 사유태도, 사유의 방법적 문제 등과 같은 정신적 실체가 여기에 속하므로 사람이나 문헌을 통하여 전수하기 어려운데 반하여, 傳承이란 구체적 모양이 있는 '有形之形'을 의미하고 사유기술, 지식, 기능, 재료, 걸모양의 이름 등과 같은 외형적, 물질적 실체가 포함되므로 전통보다는 상대적으로 전수하기가 쉽다. 전통건축의 처마, 서까래, 창호문양, 단청 등과 같은 실물적 형태가 문헌에 의한 논리의 준거없이 자연스럽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우리 한옥의 전승에 해당하고, 그러한 형식의 완성된 합리적 기술이 오늘에 전해지고 있는 원인의 궁극을 밝혀내는 노력, 예를 들어 비례관계의 특성이라든지 전통 목구조의 구조·구법의 체계, 단청의 배색원리 등을 분석해내는 것은 한옥의 문화적 전통을 규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건축에 있어서 전통의 계승이란 외형적인 전승에 대하여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져, 합리적 전통원리를 발견하고 이러한 이치에 바탕하여 현대적 기술과 재료로 전통건축을 재구성한다면 우리건축

2) 김광현, 한국 현대건축의 전통성 표현과 그 파생개념 비판, 건축과 환경, 1988. 6.

3) 이상해, 傳統과 建築文化 : 그와 상반되는 보편적인 문제점들, 건축과 환경, 1988. 6. p.98

을 오늘에 새로이 조명하는 것이 되며, 한국 전통건축의 고유한 이념과 가치관의 계승이 되는 것이다.

3. 종교적 배경과 토착화과정

속세에 속하는 인간과 他界에 속하는 궁극적 實在(神)을 연결하는 종교는 象徴的 체계를 구성하는 문화전통에 의해서 표현되고 전달된다. "이상적인 새로운 삶을 기원하는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지역과 민중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재의 삶에 肉化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종교는 건축양식과 무관할 수도 있다. 인도 초기불교의 차이트야(塔院窟)의 내부구조는 서양 바실리카와 유사하며, 중국 불교사찰은 궁전건축과 다름이 없다. 교회건축은 로마시대 범정(汎正)이었던 바실리카에서 발전하였으며 이슬람의 모스크건축은 교회건축에서 발전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종교건축은 전례의 기능을 담은 그릇으로서 항상 거룩함(聖)⁴⁾을 표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형태를 추구하여 왔고 그 시대 그 지역, 문화에 적응하여왔다. 모든 종교에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영속하는 종교건축의 普遍性이 있는 반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概念과 特殊性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土着化는 항상 종교건축의 주요과제가 되어왔다. 여기서 말하는 土着化는 종교의 가르침이 韓國文化 속으로 들어와 성장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무엇보다 한국문화에 대한 종교의 적응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토착화는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傳統性 表現은 토착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과제라 할 수 있다.

1) 불교의 도시형 사찰

한국불교의 전통은 산중불교이다. 그러나 바쁜 현대사회에서 산중불교는 부처님 말씀의 도량인 사찰과 신도와 의 만남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 오늘날 신앙형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1970년대부터 불교의 현대화와 더불어 현대 도시형 사찰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생겨났고 그 수도 급증하고 있다. 도시형 사찰은 불교의 본질적인 '예불기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친교기능과 교육기능을 수용하며 도시의 제한된 대지여건 때문에 한두개의 건물에 수직으로 중첩시켜 다층화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불교적 상징체계를 배치와 외부공간구성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통성 표현역시 외관 형태와 의장요소에 집중되고 있다.

2) 천주교 성당건축

천주교는 박해시대에 이미 교회의 전례형식과 전통한옥의 만남을 통해 교회건축의 土着化가 시작되었으며 서양교회건축이 수용되면서 전통양식을 재해석한 '한옥성당'⁵⁾이라는 건축유형이 산출되었다. 그러나 한옥성당은 일제시대와 6·25전란을 겪으면서 한옥의 외관형태만 추구하게 되고, 한·양절충식을 거쳐 점차 전통적인 요소

들이 왜곡 또는 간략화, 장식화되면서 단절된다. 그러나 제 2차 바티칸공의회⁶⁾(1962-65)를 계기로 토착화 문제는 한층 적극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토착화의 기본개념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듯이 교회는 그 지역의 문화에 적응함으로써 그 본질을 실현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이 바로 토착화인 것이다. 미사가 한국어로 집전되고, 예식이 간소화되고, 기도서와 교리서가 개혁되고, 평신도 사도직활동이 다양해지고 사회참여의식이 고조되었다. 비로소 중세의 終末論的인 교회가 현대와 각 문화 속에 肉化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토착화의 과정에서 교회건축의 전통성 표현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테마로 부각되었는데 특히 1984년 교회창설 200주년과 순교성인 103위 謚聖으로 더욱 고조되었다. 그러나 외관의 고건축 형태와 장식의 재현 내지는 재해석에 그쳐 형식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성공회 성당건축

영국 高敎會派⁸⁾ 선교사들에 의해 전래된 성공회는 선교초기부터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문화의식을 가지고 토착화의 선교이념을 추구하였다. 그리하여 토착화 교회건축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강화성당(1900)을 비롯하여 온수리성당(1906), 청주 수동성당(1935) 등 일제시대 말까지는 줄곧 한옥 성당건축이 지어졌고, 개신교회나 천주교회와 달리 韓·洋 절충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도 1940년대 이후 단절되었는데 일제말기에 倭式성당과 洋·日折衷式 성당이 등장하고, 1960년대부터는 탈양식의 근대적인 성당이 지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인 주교에서 한국인 주교로 교체되면서 토착화 의지는 더욱 퇴색되었다. 1980년대 중반이후에 와서야 토착화 의지가 일부 나타나기 시작한다.⁹⁾

4) 개신교 교회당

개신교 교회도 성공회나 천주교와 같이 선교초기에는 토착화에 적극적으로었다. 自給(Self Supporting), 自傳(Self Propagating), 自治

6)한옥성당은 전통 한옥의 軸을 바꿈으로서 서양 교회건축의 바실리카식 내부공간을 구현한 것인데 당시의 기술적·경제적 여건과 일반 민중의 情緒에 부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통로'라는 그리스도교 주제에 대응하고 '분절화와 통일성'에 의한 중세 스킴라칠라의 이념을 구현한 내부공간구조였다.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건축의 수용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9. pp.205-215 참조)

7)가톨릭교회를 내적으로 쇄신하고 현대에 적응시키며 외적으로는 문호를 개방하여 그리스도교 세계의 일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소집된 종교회의로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등 4개의 헌장과 9개의 교령, 3개의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현대교회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현대 교회건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8)성공회내에는 가톨릭 전통을 강조하는 소위 '앵글로 가톨릭'의 高敎會派(High Church)와 개신교 성향이 짙은 복음주의 노선의 低敎會派(Low Church), 그리고 이 양자중 아무것에도 속하지 않는 廣敎會派(Broad Church)가 있다. 이중 한국을 선교한 高敎會派 선교사들은 문화의식이 높았으며, 순수한 한국 전통양식의 성당건축을 통해 토착화의 선교이념을 구현하였다.

9)50년대 이후 성당건축에서 토착화된 면모를 상실하는 것은 6·25전란후의 사회·경제적 어려운 여건도 있지만 문화의식과 선교이념이 높았던 영국인 주교에서 한국인 주교로 교체되는 과정과 일치한다. 최근 다시 토착화 의지가 되살아나는 것은 선교 2세기를 맞이한 교회의 자각을 의미한다. (송철의, "한국 성공회 성당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1993. p.65 참조)

4)Niels L. Nielsen, Jr.(ed),Religious of the World,N.Y.St.Maxtin's Press, 1983, P.6 참조

5)종교의 대상인 궁극적 實在은 '거룩한 것의 경험'으로서 파악되고 상징으로 표현된다.(Paul Tillich, 이계준역, 文化와 宗教, 전방사, 1984. pp. 196-197)

(Self Governing)의 三自원칙을 기본으로 한 네비우스 선교정책¹⁰⁾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개인의 경건하고 청교도적인 삶에 비중을 두었던 미국계 선교사들은 건축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건축의 토착화는 진전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단절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토착화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그것은 이미 전개된 신학의 토착화에 대한 열띤 논쟁과 함께 신·구교의 대화, 현대교회의 사회화, 세속화 현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중세양식을 탈피하고 근대주의와 지역주의를 수용하는데 있어 훨씬 자유스러웠던 개신교회는 다양한 토착화의 시도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성장만큼이나 분파하는 한국 개신교 교회는 교회건축을 자기 종파세력의 과시 수단으로 생각하여 높고, 크게 짓는데만 몰두함으로써 교회건축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III. 전통표현의 요소와 방법

1. 건축 사상적 요소

한국 전통건축의 사상적 배경을 보면 크게 불교, 유교, 도교, 천문사상, 음양오행사상, 풍수지리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들을 한국 전통건축의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교, 불교 및 도교는 道德的·倫理的 범주에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고, 천문사상, 음양오행사상, 풍수지리설 등은 대지의 선택에서부터 배치와 좌향, 평면구성, 건물의 높낮이, 장식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건축물의 造營에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영향을 미쳐 자연과의 조화, 인간적 척도라는 한국 전통건축의 특질을 이루어왔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은 한국 전통건축에 시간을 초월한 생명력을 주었으며 건축의 공간과 형태에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 건물 각각의 공간적, 형태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조직과 구성을 이루도록 하였다.¹¹⁾

2. 건축 공간적 요소

건축의 생명은 공간에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간 전통논의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졌던 것이 배치와 공간구성이다. 좌우 대칭적인 一廊構成의 궁궐과 鄕校, 祠廟 등 유교건축, 비대칭적인 都城배치와 山地伽藍, 주거건축 등에서 서양과 다른 공간적 특성이 있다. 그것은 마당과 채(棟)와 방(室)의 구성에 의한 '공간의 분절과 연속성', '위계성', '다목적성', 중첩성' 등이다.

그러나 전통건축의 공간론에서 주로 배치와 외부공간의 구성에 초점이 모아졌기 때문에 현대의 밀집된 도시공간에서 그리고 다층화·단일건물화 되어가는 현대 종교건축에서의 접근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례를 담은 그릇인 종교건축은 내부공간의 기능성과 상징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내부공간의 구성에서 전통성 표현의 주된 요소를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3. 건축 조형적 요소

한국건축의 전통표현 요소는 조형적 측면에서 건축의 構造의 조형 요소와 意匠의 조형요소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쉽게 접근한 전통표현의 대상이다. 그것은 일반 대중에게 가장 쉽게, 즉각적으로 전통성을 인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형요소의 직설적인 재현이나 재구성은 창작성의 결여와 스케일, 구법체계, 재료와의 부조화 등 한계성도 지니고 있다. 전통건축은 물리적·구조적으로 기단, 몸체, 지붕의 3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서양건축과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조직구조가 아닌 柱·樑에 의한 架構式 몸체와 지붕인데 그중에서도 지붕의 형태와 처마의 곡선미가 한국건축의 전통미를 가장 잘 드러낸다. 의장적 요소는 창호, 재료와 질감, 색채, 문양, 가구장식, 스케일과 비례 등인데 부분적으로도 재구성, 재해석의 가능성이 가장 많다.

4. 전통표현의 유형

고건축의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재현 또는 변형을 통하여 전통성을 표현하는 형식 논리는 19세기 절충주의 건축가들이 느꼈던 소외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사상적 접근을 통해서만 전통성을 표현한다는 것은 일반대중에게 과거의 건축과 현대건축과의 연속적인 이미지를 형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느 한가지 방법만으로 전통성을 표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직설적 描寫의 단계 - 형태의 抽象化 단계 - 전통의 再解析 단계를 충실히 거치면서 발전해온 일본의 경우와 달리 우리의 고전건축과 현대건축 사이에는 '역사의 단절'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전통표현의 방법과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전통형태의 직설적 복고

전통건축물의 전체 또는 부분을 새로운 재료에 의해 그대로 복제하여 나열 또는 재조합함으로써 건물의 외형을 구성한 다음 그 내부를 현대적인 기능으로 채우는 것을 말한다. 전통표현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이다.

2) 전통건축의 문법에 의한 수용

고전적 규범에 바탕을 두고 서양건축의 의미를 접목시키는 것으로 전통요소의 援用과 變用의 방법이 있다. 고전적 전통형태를 상징화해서 하나의 건축어휘로 사용할 수도 있고 고전의 구법체계나 비례체계를 활용할 수도 있다.

3) 근대건축의 문법에 의한 전통의 수용

전통에 대한 독자적이고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 전통요소를 변용하거나 전통적 이미지를 추상화하는 것이다. 전자와 다른 점은 근대건축의 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그 위에 전통요소를 수용한 것이다.

10) 중국의 선교사 네비우스(J.L.Nevius)가 1890년 한국의 일곱 선교사에게 초청을 받아 제시한 선교방법으로 土着교회 3대원칙-自給, 自律, 自治-을 골자로 선교지역을 분할하여 각 교파간 마찰없이 선교활동을 하도록 하었는데 초기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네비우스 선교방식은 상류층보다 중류나 하류층에 역점을 두어 "평민의 종교"로서 개신교에 대한 호의를 진작시켰다.

11) 지광석, "한국현대건축의 형태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7, p.53

IV. 종파별 연구대상 건축물의 전통표현 현황 분석

조사 대상건물에 대한 전통성 표현의 현황을 건축사상적 요소, 건축공간적 요소, 건축조형적 요소 및 방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의 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한 도면은 필자의 실측에 기초한 것이나 일부는 [종교건축] 산업도서출판, 1995에서 전제한 것이다. 분석표의 ○표는 적극적인 수용을, △표는 소극적인 수용을 나타내며, 기존 연구 또는 비평자료를 참고하여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1. 도시형 사찰

도시형 사찰은 전통 산중사찰과 기능과 공간배분에 있어 많이 다르며 또한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아직 '도시형 사찰'의 바람직한 모델을 찾기는 힘들다.¹²⁾ 70년대이후 서울지역에 지어진 14개의 사찰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관 형태와 의장요소의 전통성 표현

대부분 사찰의 외부형태는 불교라는 통념과 도시내의 인지성을 이유로 전통적 형태의 영향 아래 있다. 전통성 수용과 표현의 정도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통적 형태의 직설적 표현 : 선학원(1973), 법안정사(1989), 대각사(1989)

(2) 전통적 문법의 수용 : 불광사(1982), 삼선 포교원(1984), 삼보사(1985)

(3) 근대문법에 의한 전통의 표현 : 삼보정사(1971), 대원정사(1978), 달마회관(1989), 능인 선원(1995)

(4) 전통과 현대의 절충 : 수안사(1988), 석불사(1991), 구룡사(1992), 법련사(1995)

(1)의 부류들은 기와지붕과, 열주, 난간, 처마곡선 심지어 단청과 공포까지 사용하여 외관을 될 수 있는한 과거의 목조건축과 유사하게 꾸몄다.

(2)의 경우는 고전적 전통형태를 상징화해서 하나의 건축어휘로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전통적 목조건축이 아닌 탑과 등의 모습을 건물의 전체 형태로 삼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다층의 구조물인데서 착안한 것이다. 삼선포교원은 탑의 형태를 재현했고, 불광사와 삼보사는 기둥과 보, 그리고 처마선을 주요한 건축어휘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류의 사찰은 80년대 초반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3)의 경우는 전통에 대한 독자적이고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 전통적인 외관형태에서 벗어나 기존 사찰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고 있다. 기능의 합리성과 새로운 형태 이미지의 전달에 역점을 두었는데

12) 교단차원에서 도시형 사찰의 건축적 기준이나 방향이 설정된 바는 없다. 다만 진각종의 포교당들은 자신들이 정한 교리에 따라 전형을 마련하였으며 전국에 동일한 유형의 건물을 짓고 있다. 즉 宗祖의 3대 유훈 가운데 언급되는 "西南法"에 따라 대지나, 건물, 본존을 서남쪽을 향해 배치하며, 전국 포교당의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표준형 설계도를 갖추고 있다(대한불교 진각종, 종조열반 30주년 기념자료집, 대한 진각종 기념사업회, 1993. p.16 참조)

설계과정에서 건축주보다 건축가의 의지가 지배하였던 경우이다. 달마회관의 경우는 대승불교의 이념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실천덕목인 6바라밀을 상징화하고, 팔정도의 의미를 부여하여 禪 수행 도량으로서의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능인선원은 경사진 대지에 적합한 평면구성을 하였고, 대로변에 면한 정면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하여 거대한 매스로서의 인식을 시도했으며, 그 안쪽에 넓은 면적의 중정을 두어 야외의식 및 외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4)저층부에 돌을 사용하여 현대적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상층부에 고전적 형태를 수용하고 있다. 구룡사는 지상 4층의 R.C.구조 위에 목탑형태의 3개 층을 올려서 극락전과 선방을 갖추어 놓았고, 수안사는 상층부에 전통사찰의 공포부와 지붕을 그대로 재현하여 현대와 고전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석불사는 경사진 대지를 이용하여 저층부를 석재로 된 현대적 이미지의 석축과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진입시엔 현대적인 건축물의 느낌을 갖다가 우측계단을 이용해서 잠시 오르면 확터진 마당과 함께 전통적인 대응전과 요사체로 싸인 중정의 느낌을 재현하고 있다. 게다가 석불사는 기존의 극락전과 칠성각의 고전적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서 새롭게 지어진 현대사찰과 조화를 꾀하고 있다.전체를 답습하던 의장요소를 차용하던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들은 기와지붕, 한국적 곡선, 목조기둥을 연상시키는 콘크리트 열주, 완자무늬 창, 탑, 홍예문, 종각과 누각 등이다.

2) 내부공간의 전통성 표현

도시형 사찰의 내부공간은 예불공간(법당), 수도공간(승방, 선방), 사회교육공간(회관, 도서실, 신도실, 강당 등), 관리공간(사무실, 기계실), 기타 부속공간(루각, 종각 등) 등 크게 5부분으로 기능분류를 할 수 있다. 그 중 전통의 표현은 예불공간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통적 형태를 직설적으로 수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대지의 제약과 새로운 기능의 수용, 그에 따른 다용도화와 복합화로 인해 야기된 전통성과 종교성의 상실을 법당에서 보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예불공간의 내부는 구조 및 재료와 관계없이 목조건축의 架構 디테일과 丹青이 동원되며 각종 불상과 성상이 안치되고, 탱화로 장엄하게 장식한다. 전통사찰의 각 전각들은 독립된 불교성상을 봉안한 형태였다.¹³⁾ 그러나 현대 도시형 사찰은 여러 법당과 법당을 둘 수가 없어 고전적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삼존불¹⁴⁾의 경우 대부분이 석가모니, 관세음 보살, 지장보살로서 변형되고 있다. 이는 일반불자들의 신앙대상이 관음, 지장인데 비해 따로 관음전, 지장전을 둘 수 없으므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석가모니부처의 협시상으로 봉안하므로써 단일 법당에 3가지 의미를

13) 佛殿으로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寂滅寶宮(舍利塔殿), 석가모니를 모신 大雄殿, 석가모니를 본존으로 모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대한 신앙세계를 함께 묘사한 應眞殿과 羅漢殿, 毘盧舍那佛을 모신 大寂光殿, 극락정토의 아미타불을 모신 極樂殿, 미래의 부처인 미륵을 모신 龍華殿(彌勒殿), 賢劫의 모든 부처를 모신 千佛殿 등이 있고, 보살을 모신 법당으로는 관세음보살을 모신 圓通殿, 지장보살과 幽冥界의 十王을 모신 冥府殿, 문수보살을 모신 文殊殿, 보현보살을 모신 普賢殿 등이 있다.

14) 삼존불은 석가모니부처 좌우에 문수보살 및 보현보살이 위치하고, 아미타부처의 좌우에는 大勢至 觀音보살, 또는 地藏 觀音보살이 위치한다.

는 위축되었다. 일부 한국성 모색이라는 내용과 표상으로서의 전통 계승 방법론이 추구되기도 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하였다.

세째, 한국 건축계의 포스트 모던(Post Modern)과 다원주의 경향, 천주교 선교 200주년과 개신교 100주년, 도시형 사찰의 전개 등으로 80년대는 다시 전통성 표현이 종교건축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념과 실제, 내용과 형식이 상충하는 매너리즘적이고 장식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네째, 사용 빈도가 높은 전통표현의 요소는 조형적 요소, 공간적 요소, 사상적 요소의 순이며, 공통적으로 조형요소는 지붕, 처마, 창호, 문양, 재료, 기둥, 비례, 색채 등인데 사찰은 특히 색채(단청)에 의한 전통성 표현이 강하다. 공간적 요소는 위계성의 추구가 강하고 배치와 외부공간 구성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나 미약하며, 사상적 요소는 그다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도시형 사찰을 포함하여 단일건물화·다층화 되어가는 현대의 종교건축은 외관이나 배치보다도 내부공간에서 종교적 이념과 우주관을 표현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공간을 통해 傳統性과 宇宙觀을 표현하고자 한 건물은 찾기 힘들다.

2. 종교건축에 있어서 전통성 표현의 방안

한국은 훌륭한 전통 건축문화를 갖고 있다. 종교건축이란 전례라는 기능을 담은 그릇일 뿐만 아니라 시대와, 지역과 민중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肉化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무엇을 하며 어떠한 곳인가 하는 장소성과 상징성이 더욱 중요한 건축유형이다. 그러한 뜻에서 의미를 전달해주는 언어와도 같다. 따라서 건축과 언어를 비교하면서 전통성 표현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건축적 어휘(architectural vocabulary)

한국 건축의 문화전통을 규명하는 중요한 방법은 한국 전통건축에서 사용되었던 건축적 어휘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그 현대적 의미를 규명하여 현재성을 가진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다.¹⁶⁾ 건축설계와 문장 구성은 어느 면에서 매우 흡사한 과정을 갖고 있다. 언어학에서 단어(word)를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인 음소(phoneme)는 의미가 없고, 의미를 갖는 가장 작은 단위는 단어 자체이며 단어가 문법적인 구성 관계를 가짐으로써 의사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音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통에서는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기와, 전돌, 창호지 등을 그것만을 따서 쓴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표현의 제1단계는 종교건축과 한국 전통건축에서 사용되었던 건축적 어휘(구조적 요소, 기능적 요소, 의장적 요소)를 분석, 연구하여 그 현대적 의미를 규명하고 이를 융합하여 현재성을 가진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통건축의 문양이라든지 단청의 색조, 지붕의 형태미, 목조건축의 공포구성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 건축구성 방법(architectural syntax)

다음 단계는 언어학에서 문법에 대비될 수 있는, 건축적 어휘를 모

아 구성하는 방법과 그 연관관계를 규명하여 현대적 의미를 찾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바른 문법체계를 갖추지 못했을 때 그것은 의미 전달이 안될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이러한 문법, 즉 건축어휘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건축에 있어서 비례관계의 특성이라든지 전통 목구조의 구조, 구법의 체계 등을 규명하는 것인데 동, 서양 건축에는 이질적인 요소와 더불어 상통점 또한 적지 않다. 한옥에 있어 4개의 기둥에 의해 구성되는 하나의 단위공간인 間은 중세 서양 교회건축의 베이(bay)에 대응하며, 바실리카식 교회의 삼랑식 공간구성은 불교의 차아티아라는 탑원굴의 삼랑식 구조와 대응한다. 또한 단청과 스테인드글라스에서 볼 수 있는 문양과 색조, 배색원리 등에도 상통점이 있다. 이러한 서양 종교건축과 한국 전통건축간의 어떤 구법상의 일치점에서도 그것을 현대화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3) 건축의 이념과 가치관(architectural idea)

전통의 계승과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간성을 초월하여 새롭게 영속될 수 있는 한국 전통건축의 고유한 이념과 가치관을 파악하고 이를 종교의 교리체계 안에서 재해석하거나 종교의 정신을 불어넣어 계승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화할 수 있는 한국건축의 우수한 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인간적인 척도개념으로 헤아릴 수 있는 친근감을 주는 스케일
- (나) 자연을 존중하고 지세에 잘 적응하며 인위적인 기교를 덜하고 자연미를 나타내도록 하는 태도.
- (다) 세부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적인 미적구성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단아한 아름다움을 갖게하는 방법.
- (라) 조선시대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유교의 검소한 멋.

4) 내부공간의 상징성(symbolization of interior space)

종교는 상징을 통해 이해되고 표현된다. 그리고 종교의 궁극적인 상징은 可視인 형태 보다는 보이지 않는 空間에 있다. 오늘날 종교적 인식과 실천은 대부분 내부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내부공간 이상으로 종교의 이념과 상징체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전통건축의 내부공간과 상징성에 주목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전통표현의 과제를 찾을 수 있다.

5) 건축의 시대정신(zeitgeist)

마지막으로 종교건축은 시대정신을 표현해야 한다. 현대의 새로운 시대적 특성인 인간화, 민주화, 비성역화를 어떻게 종교건축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실제 종교건축을 건립할 때 많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건축가뿐만 아니라 성직자, 종교학자들과의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신학의 토착화 및 실천신학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17) 불교의 세계관은 차원이 다른 10종의 존재들로 구성되며 그들의 위계가 뚜렷한데 사찰은 이중 깨달음의 경지에 있는 聖聞, 緣覺, 菩薩, 佛의 4聖들을 예배하고 스스로 수행하여 成佛하기 위한 장소이다. 전통사찰들은 佛을 모시는 佛壇과 聖聞, 緣覺, 菩薩의 菩薩壇, 사찰의 수호신의 神衆을 모시는 神衆壇의 三壇으로 구성되어 왔다.

16) 윤장섭, 한국 건축 연구, 동명사, 1983, p.305

3. 종파별 전통성 표현의 방향제시

2절에서는 종교건축에 있어서 보편적인 전통성 표현의 방안을 다섯가지로 제안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종파별 교리체계와 이념에 따른 전통성 표현의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형 사찰

(가) 사찰건축은 전통성 표현의지가 강하나 주로 전통적 형태의 재현이나 절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伽藍의 배치를 통해 종교적 우주관¹⁷⁾을 표현했던 불교건축이 이제는 단일건물화 됨으로써 내부공간의 구성과 진입공간의 상징화를 통해 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 대부분의 사찰은 내외부 丹青과 佛畫를 통해 쉽게 불교건축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을 현대적인 건축재료(콘크리트, 유리, 철)에 적합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단청의 문양과 배색기법을 색유리(stained glass)와 접목시키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다) 佛塔 역시 한국사찰의 전통을 대변하는 요소이다.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라는 고유한 의미를 되새겨 단순한 옥외 장식물이 아닌 적극적인 聖物로서 현대화하고 활성화 하여야 한다.

(라) 전통적인 불교의 상징적 장식요소를 현대화하여 도시사찰의 내외부에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예불공간을 더욱 풍요롭게 해야 한다.

2) 가톨릭 성당

(가) 초기 한옥성당에서 보여주었던 토착화의 시도를 재평가하고 이를 현대건축에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 '하느님의 집'인 동시에 '하느님 백성의 집'을 상징화 할 수 있는 건축 공간개념을 전통건축의 제 특성 속에서 찾아내고 이를 적용한다.

(다) 정통적인 가톨릭 성당건축의 공간개념은 '공간의 위계적인 분절화'와 '통일성'이다.

이를 현대건축의 구조와 공간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라)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대한 실천신학적 해석을 통해 교회건축의 원칙과 전통성 표현의 실마리를 찾아낸다.

(마) 가톨릭의 시각적 상징요소-문양과 형태-를 전통적인 조형감각으로 변환·재창조한다.

3) 성공회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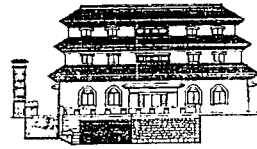
(가) 초기 한옥성당에서 보여주었던 훌륭한 토착화의 성과를 재평가하고 이를 현대건축에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나) 성공회의 중도적인 특성-가톨릭적인 전례와 프로테스탄적인 교리체계-를 건축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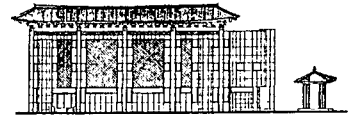
4) 개신교 교회당

(가) 대형화를 지양하고 공동체 생활이 중심이 되는 교회, 가정적 분위기의 교회당, 주변과 조화되는 교회당 건축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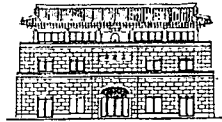
(나) 강당화한 내부공간 형태를 지양하고 神的 實體인 동시에 '人的 實體'로서의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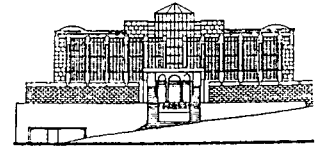
삼선포교원(1984)



수안사(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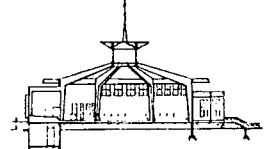
법련사(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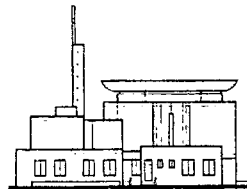
능인선원(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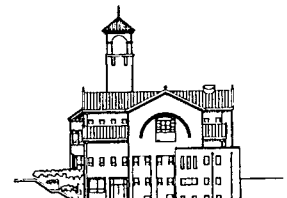
서문동성당(1969)



대부동성당(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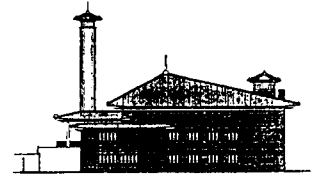
지산성당(1992)



고산성당(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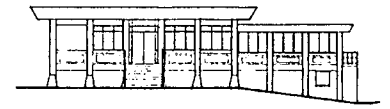
초평성당(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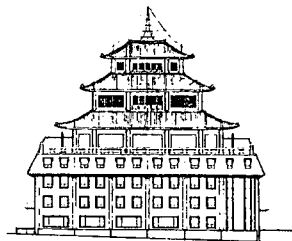
양지성당(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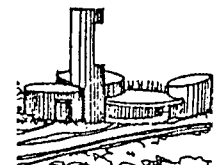
새남터성당(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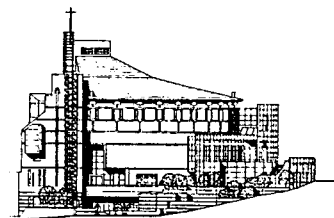
내리성당(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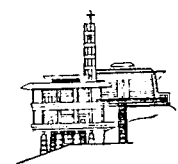
구릉사(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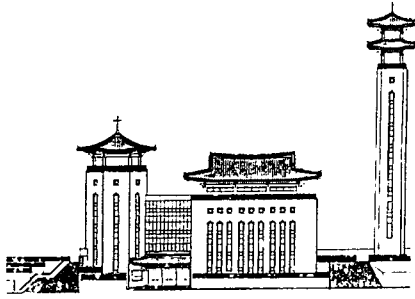
제암리교회(1970)



예뒸교회(1995)



절두산성당(1967)



장석교회(1995)

(그림 1) 주요 종교건축물

(다) 교회건축의 역사성을 중시하고 그로부터 전통성 표현의 실마리를 찾는다.

VI. 결론

1960년대 이후 한국 종교건축에 있어서 전통성 표현의 접근방식과 요소별 유형을 도시형 사찰, 가톨릭 성당, 성공회 성당 및 개신교 교회당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그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종교의 이념과 교리로부터 추출된 건축의 원칙과 전통성 표현의 개념정립을 통해 전통계승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전통표현의 문제는 세계건축의 지역주의 흐름과 민족 주체성 확립이라는 문화정책을 배경으로 6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었으며, 특히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토착화 정신과 병인순교 100주년 기념성당을 통해 천주교에서 보다 활발하게 추구되었다. 그러나 중심과제는 형식논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 2) 70년대에는 기념비적 공공건축에서 보여준 양식 복고적인 전통 표현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종교건축에서의 전통성 표현은 위축되었다. 일부 한국성 모색이라는 내용과 표상으로서의 전통계승 방법론이 추구되기도 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하였다.
- 3) 한국 건축계의 포스트 모던(Post Modern)과 다원주의 경향, 천주교 선교 200주년과 개신교 100주년, 도시형 사찰의 전개 등으로 80년대는 다시 전통성 표현이 종교건축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념과 실제, 내용과 형식이 상충하는 매너리즘적이고 장식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 4) 전통성 표현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태도에 있어서도 종파별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아직도 전통의 계승과 전승이 구별되지 못하고, 다양한 전통표현의 과제를 찾지 못하고 있다.
- 5) 이는 종교의 이념과 교리로부터 건축의 원칙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신학의 부재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다소나마 전통성 표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수확이라 할 수 있다.
- 6) 공통적인 전통성 표현의 단계와 방안을 언어구조에 비유하여 '건축적 어휘', '건축구성방법', '이념과 가치관', '내부공간의 상징성', '종교건축의 시대정신'으로 제안하였으며, 종파별 특성을 감안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의 제안이라기 보다는 개념적인 접근에 머문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1.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건축의 수용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9. 2.
2. 김정신, "성공회 한옥성당 건축에 관한 실측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1권 2호 통권 76호, 1995. 2.
3. 김봉렬, "현대 도시사찰의 건축계획과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1권 4호 통권 78호, 1995. 4.
4. 김성한, "개신교 교회건축의 변천과정과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의 특징"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8. 1.
5. 노규현, "건축에 있어서의 문화와 전통" 이상건축 9507, pp. 98-105
6. 송철의, "한국 성공회 성당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1993. 2.
7. 윤장섭, "한국건축연구" 동명사, 1983. 2.
8. 정진홍, "한국종교문화의 전개" 집문당, 1986
9. 조창한, "교회건축의 토착화와 당면과제" 한국 기독교와 예술, 숭실대학교 한국 기독교 문화 연구소, 1987. 9.
10. 최오용, "현대 도시형 사찰건축의 공간구성 및 물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 학위 논문, 1994. 7.
11. 한국사목연구원, "전례·영성의 토착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2
12. 홍순명,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의 유형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 박사학위 논문, 1999. 2.
13. Bouyer L., Liturgy and Architecture, Notre Dame University Press, 1967.
14. James Huntley Grayson, Early Buddhism and Christianity in Korea, E.J.Bill, 1985
15. Mircea Eliade, 이동하역, 聖과 俗(종교의 본질), 학민사, 1983

〈접수 : 1997. 1. 21〉